



④ 무분별이 들고오는 상처와 비극

성에 대한 의의와 그 가치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윤리와 도덕적인 범주내에서의 성행동이라면 아름다울 수 있으며 인생을 윤택하게하고 가정도 사회도 건전해 질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할 때에는 개인이나 사회가 다같이 불행해 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치 아름다운 장미를 꺾을때 잘못하면 손가락을 찔려서 피를 흘리듯이, 무분별한 성행동은 미혼모나 성병이란 불행을 낳게 한다는 사실을.....

① 어원과는 걸맞지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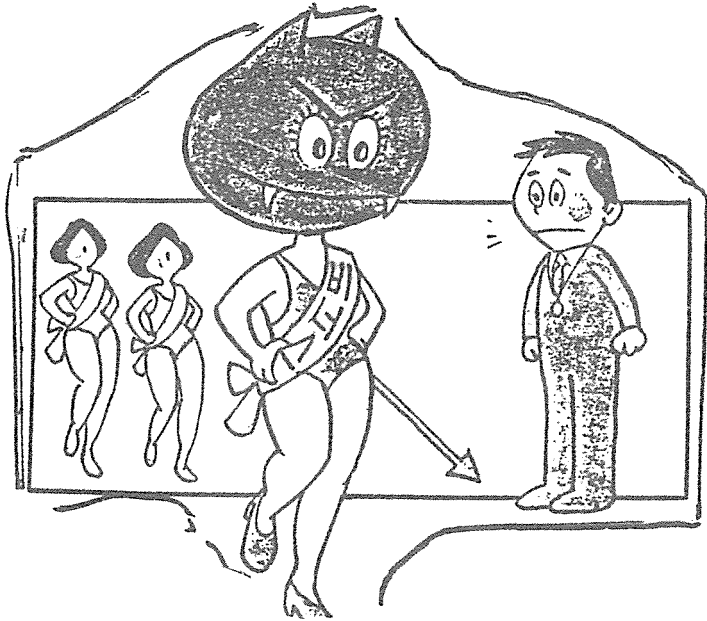
세상에는 질병에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악질적인 세포의 증식에 의해 생기는 암이라든가, 신체의 내부에 그 원인이 있는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이 있고 외부로부터 병원균이 체내에 침입하여 생기는 이질이나 결핵같은 질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병은 주로 성행위를 통해서 접촉된 부위의 점막이나 피부로부터 성병의 병원균이 침입하여 생기는 병으로서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겨지는 전염병의 일종입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성병을 우리나라에서는 속칭 “화류병”이라 불리워 왔습니다만, 외국에서는 “Venereal Disease” 즉 “VD”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Venereal”이란 단어의 어원



(語源)을 살펴보면, 기묘하게도 미의 여신 “Venus”에서 유래된 말로서 어원 치고는 걸맞지 않은 감도 있으나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과정에서 생기는 병이란 뜻인 듯 합니다.

② 비틀거리는 성도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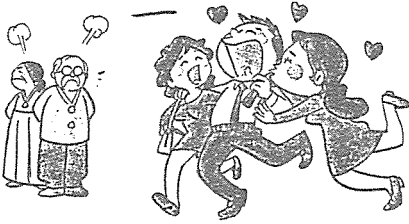
성이란 본래 자손을 갖기 위해서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남녀간에 깊은 신뢰와 애정을 심어주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갖는데 참뜻이 있다고 하겠읍니다.

어느 나라고 인간 사회에는 윤리와 도덕이 있고, 법과 질서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성을 구가하고 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인간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도 나쁠것이 없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의 본질이나 존엄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

고, 이를 잘못 이해하여 아무렇게 즐겨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성의 쾌락적인 면만을 쫓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에서 성이 문란하다는 소리를 자주 듣게 됩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성에 대한 호기심이 강할 뿐 아니라 항상 새로운 것을 좋아하며 앞질러 가는 경향이 있어서 성의 해방을 저항없이 받아들여 한층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미혼모가 생기고 성병이 만연되기도 하여 달갑지 않은 사회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들이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사회문화가 발달된 지금에는 특히 성의 향락만을 추구하는 풍조가 사회에 만연하고, 성의



문란도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③ 혼란을 유발하는 성의 촉매제들

더구나 현대는 정보시대라고들 합니다. 많은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쏟아져

나오는 정보물 중에서 성에 대한 호기심과 성적 충동을 자극하는 것들이 많아 자칫하면 젊은이들로 하여금 성을 올바르게 이해하지도 못한 채 무분별한 성행동을 유발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사회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날로 늘어나고 있는 미혼모의 문제라든가, 성병의 증가현상, 등은 쉽사리 해결되지 못한 채 심각한 지경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